

사 사이트 핀테크 플랫폼 상용화 나선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

“국제규격 무장 ‘코나페이’로 애플·구글과 경쟁할 터”

“결제 수단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국가 간 호환성이 없는 지불결제 수단은 실패할 것입니다. 또 강력한 보안과 인증기술을 보유해야만 핀테크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는 핀테크 시장에 대해 국가 간 장벽을 허물 수 있는 호환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망했다. 최근 코나아이는 모바일 결제 부문 글로벌 표준 스펙을 모두 충족한 간편결제 플랫폼 ‘코나페이’를 개발하고 상용화에 나섰다.

코나아이는 스마트집 부문 1위 기업이다. 여세를 몰아 지불결제 등 핀테크 시장에 뛰어 들었다.

조 사장은 “국내 핀테크 모델은 국제 기술 기반 결제 플랫폼으로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해외에는 글로벌 브랜드 규격과 로컬 브랜드 규격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 “코나페이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바일을 아우르는 글로벌 기반 간편결제 솔루션을 선보일 것”이라며 “해외 글로벌 사업자와 다각적인 제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코나아이는 코나페이 상용화를 기점으로 모바일 국제 규격을 만드는 작업도 착수한다. 한국형 핀테크 플랫폼으로 해외 글로벌 공룡기업 애플, 구글 등과 경쟁하겠다는 목표다.

방글라데시 등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핀테크 플랫폼 핵심 기술을 해외에서 개발 중이다.

조 사장은 “글로벌 마케팅을 펼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표준화 작업과 현지 마케팅이 필수”라며 “중국과 방글라데시 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코나아이는 플랫폼 사업으로만 약 200억원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해의 공룡기업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플랫폼에 대해서는 기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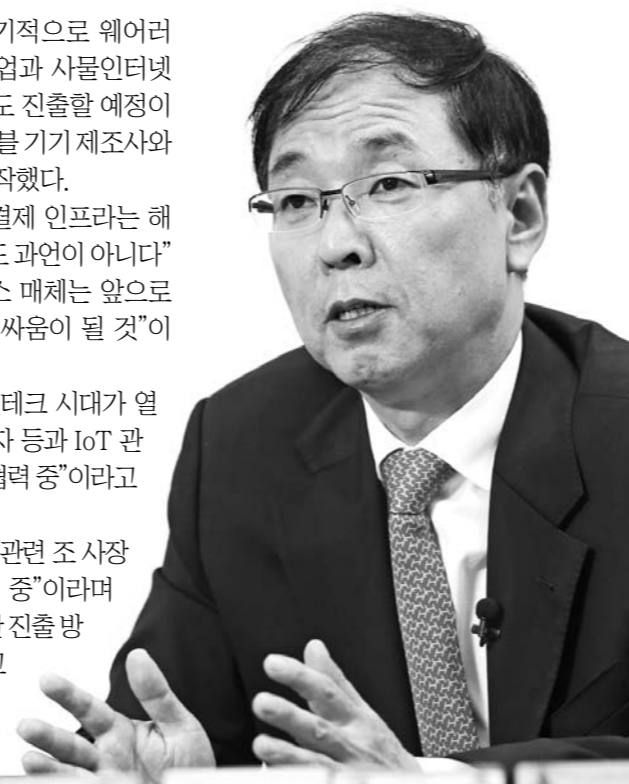
결제기술과 공존하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나아이는 중장기적으로 웨어러블과 접목한 결제사업과 사물인터넷(IoT)부문 보안사업도 진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웨어러블 기기 제조사와 최근 연동 작업을 시작했다.

조 사장은 “이미 결제 인프라라는 해외에 점령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모든 결제 서비스 매체는 앞으로 OS와 애플리케이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향후 IoT 핀테크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LG전자 등과 IoT 관련 여러 비즈니스를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 조 사장은 “컨소시엄을 준비 중”이라며 “국내 PG사 등과 동반 진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



美 빅스위치와 HW·SW 제품개발 협력

나임네트웍스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킹(SDN) 전문업체 나임네트웍스(대표 류기훈)는 빅스위치네트웍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빅스위치는 2010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SDN 전문업체다. 지난 2014년 일본에 지사를 설립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양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및 판매, 데이터센터 관련 기술 지원 서비스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류기훈 나임네트웍스 대표는 “국내 SDN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내 네트워크 업체와 협업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나임네트웍스는 빅스위치네트웍스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전문기업과 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협력으로 SDN 2.0 시대에 걸맞은 모범 사례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싱가포르 R&S와 ‘클라우드디움’ 유통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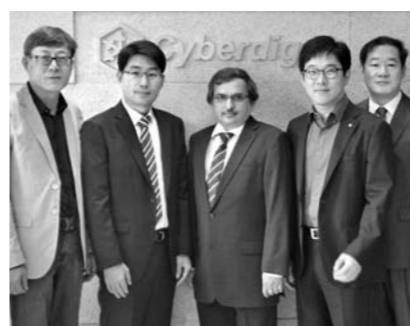
사이버다임

사이버다임(대표 김경재)은 싱가포르 솔루션 유통 전문 기업 R&S 이노베이션&테크놀로지(Innovation & Technology)와 파트너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R&S 이노베이션&테크놀로지는 사이버다임 프라이빗 클라우드 스토리지 ‘클라우드디움’을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판매한다.

클라우드디움은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일체형 제품으로 빠르고 쉽게 설치할 수 있다. 구성뿐만 아니라 테스트·교육·운영 등이 쉬워 해외에서도 어려움 없이 안전한 문서 관리를 지원한다.

지난 10여년간 다양한 고객사에서 검증된 전자콘텐츠관리 솔루션 ‘데스티니 ECM’과 동일한 엔진을 사용해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어플라이언스로 제품도 단일화된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는



김경재 사이버다임 대표(왼쪽 두 번째)와 슈레쉬 카란스 R&S 이노베이션&테크놀로지 이사(오른쪽 두 번째) 등 양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점도 해외 파트너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R&S 이노베이션&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싱가포르는 다국적기업 비즈니스 허브로 현재 제조·금융·제조 등 다양한 산업이 기술 유출에 노출돼 문서 보안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사이버다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배식 봉사하는 권선주 기업은행장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오른쪽 첫 번째)이 21일 대전 서구 행복누리복지관에서 대전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무료 급식차량인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전달한 뒤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 기업은행은 현재 총 서른 대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다.



통영생산지지 안전관리 점검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오른쪽 두 번째)이 통영생산지지를 방문, 지지 생산 현황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 사장은 “최근 대형 안전사고를 타산지식 삼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환경산업기술원 “청소년 환경박사 키워요”

서울 금천구와 ‘닥터이코’ 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서울 금천구청과 자유학기제 지원사업으로 ‘환경박사! 닥터이코(Dr. Eco)’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박사! 닥터이코는 금천구청이 운영하는 친환경 교육·홍보관 금천이코센터에서 친환경 시설 견학, 기후변화 현상·대응 강의, 미래 유망직업 그린작 소개, 온실가스 감축 관련 토크 등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명예박사 학위증’을 수여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금천구 소재 세일중·문성중·문일중·안전중·시흥중 등이



환경박사! 닥터이코 명예 박사 학위증.

참여한다. 세일중과 문성중은 지난 10일과 15일 각각 교육을 진행했으며, 나머지 세 곳은 여름방학 이후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단순 과학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끼와 꿈을 발견하고 환경 분야 미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경영자문봉사단 위원장에 인사

남기재 전 LG정보통신 전략기획실장이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 위원장에 임명됐다. 남 신임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사를 거쳐 18년간 LG그룹에 재직했고 기아정보시스템 대표이사, 태항아이에스 부회장을 역임했다. 남 신임 위원장은 2008년 경영자문단에 입단한 뒤 7년간 100여개 중소기업에 찾아가 경영전략, 마케팅, 인사조직관리 분야 경영노하우를 전수했다.



◆예금보험공사 <1급 승진> △보험정책부장 박대준 △금융정책1부장 장진영 <2급 승진> △보험정책부 팀장 손종현 △정산회수1부 팀장 한형구 △조사지원부 팀장 안병욱 <3급 승진> △기획조정부 장영갑 △미래전략TF 이광훈 △홍보실 진상호 △보험정책부 김신영 △창조경영실 강동훈 <4급 승진> △인사지원부 권민규 △최우석 △금융정책1부 양순철 △청산회수기획부 손진현 △ 신승섭

◆금융결제원 <승진> △상무이사 박연상

부음

▲박정호씨 별세, 최동(대한항공 상무) 회장(기술보증기금 차장)씨 부

친상, 이등호(SOL 대표)씨 장인=20일 오후 11시 30분, 일산병원 장례식장 8호, 발인 23일 오전 7시 (031)900-0444



박근희 삼성사회봉사단 부회장,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주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왼쪽 두 번째부터) 등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신월동 대한적십자사 긴급구호종합센터에서 이재민에게 전달할 응급구호품 세트를 포장하고 있다.

적십자사에 1만명분 응급구호품 전달

삼성사회봉사단

삼성은 21일, 서울 신월동 대한적십자사 긴급구호종합센터에서 응급구호품 전달식을 갖고 재난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게 필요한 응급구호품 1만여명분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응급구호품은 담요, 구호 의류, 비누, 화장지, 치약, 수건 등 총 14종으로 구성됐으며 갑작스런 재난 시 이재민의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것들이다. 총 5911세트로 금액은 5억원 상당이다. 대한적

십자사 14개 지사에 분산 비축돼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급된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근희 삼성사회봉사단 부회장,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주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과 삼성 임직원, 적십자 봉사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박근희 부회장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한다면 설령 재난이 발생해도 피해와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응급구호품이 재난 시 이재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형석기자 hssseo@etnews.com

아드반테스트, AMTC 최고 공급업체 영예

아드반테스트(대표 구로에 신이치로)는 최첨단 포토 마스크 제조업체인 아드반스마스크테크놀로지센터(AMTC)로부터 ‘2014년 최고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최고 공급업체 선정은 공급성과 기술력, 지원 3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아드반테스트는 평가 대상 11개 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품 성능과 신뢰성, 고객 요구 충족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드반테스

트 마스크 MVM-SEM은 로직 디바이스와 메모리 장치 모두에 널리 사용되는 마스크 미세 패턴을 측정한다.

AMTC 관계자는 “아드반테스트는 모든 레벨에서 기대를 크게 초과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아드반테스트 관계자는 “아드반테스트는 지속적으로 제품 품질과 최선의 노력으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저금리 시대! 사옥은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 임대료로 줄줄 새는 고정비 지출
- 저금리기조를 이용한 사옥매입 후 필요하신 면적만 사용하고 추가적인 임대수익 발생
- 향후 시세상승으로 기업의 자산가치 상승
- 귀사가 원하는 수익성과 자산가치 상승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사옥을 찾아드립니다.

◆ 추천 빌딩 ◆

- 강남 테헤란로 랜드마크빌딩
- 대기업 밀집지역으로 대로변에 위치
- 시세대비 구매
- 대지 700㎡ / 연면적 6,000㎡

- 강남의 마지막 황금라인 봉은사로에 위치함
- 현 사옥 준공 후 24배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기업의 사옥
- 대지 800㎡ / 연면적 4,500㎡

- 강남 트랜드의 중심 도산대로변에 위치함
- 명품브랜드 법인 사옥
- 대지 1,100㎡ / 연면적 3,500㎡

- 이외 강남3구, 종로, 여의도, 분당지역 물건 다수 보유

20년 전통의 사옥 및 수익형 빌딩 전문 중개법인 - (주)프리엠에셋부동산중개
대표 박 세 민

TEL : 02-557-1036